

AUTHOR 신복윤 (Bock Eyun Shin)

TITLE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들 (III)

IN 신학정론

vol.16 no.2 (November, 1998): 355-379

22:18)에서 단순히 한 시대를 산 성도의 한 그룹이 아닌, 요한계시록 '계사-선자-서신'서의 말씀을 읽는 자 각 사람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¹⁵²⁾

또 저자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이중의 원리를 생각한다. 이 이중의 원리란, 어떤 책이든지 저자의 문학적 어조와 저술의 목적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실제의 목적, 곧 수신자들의 실존 상황과, 그들의 시대의 형편과, 장차 임할 시대의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필요를 채워주려는 것이었다. 그 필요 중 하나는,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끝까지 인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펴박을 받고 있는 교인들의 기도와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사실과(계 7:17; 21:4), 그들의 기도가 이 세상 일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그들의 순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보배로운 것임을 그들에게 확증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의 최후 승리가 보증되었다는 사실과(계 15:2), 그들의 흘린 피가 값음 바 될 것이라는 것과(계 19:2), 그들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사실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취하시고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계 21:22),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이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이중 의도를 염두에 두고, 또 요한계시록 해석의 이중 원리, 즉 저자의 저술 목적과 저자의 문학적 어조에 비추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네 가지 도구를 활용하면,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저자는 확신한다.※

152)참고. 딤후 3:12; 마 24:29~30.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들(III)

- 救援의 全的 恩惠性 -

신 복 윤

<조직신학·교수>

개혁주의는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다고 믿는다. 그래서 중생교리는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이 된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주의는 구원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크게 드러나기를 힘쓴다. 이처럼 개혁주의자는 자신은 다만 죄인이며, 구원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자비를 의지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神人協力說의 악한 누룩을 그들은 반대한다. 神人協力說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박탈하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인간에게 어떤 선택권, 또는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Warfield, *The Plan of Salvation*, p. 124).

중생은 독점적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것은 인간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며 성령의 사역이다. 중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요, 영혼은 다만 중생되는 것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혼은 중생에서 피동적이기 때문에, 중생은 우리 안에서 일으

켜지는 변화이지 우리가 직접 일으키는 변화가 아니다(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III, p. 81). 성령께서는 창조적 권능을 발동하여 해야될 수 없는 방법으로 마음의 주관적 성향을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진리를 받아드리게 만든다(A. A. Hodge, *Outlines of Theology*, pp. 459~460).

죄인을 중생 시키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목적을 실현시키는 전능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질상 유효하며, 죄인의 항거에 의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은 성령의 특별한 감화로 그들의 주관적 성향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고무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신 때에 즉시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할 때 즉각적으로 효과가 따르는 것이다. 이 특별 은혜의 감화는 의지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기 때문에 죄인의 어떠한 저항으로도 무효화되지 않는다.

개혁주의는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自力救援說을 반대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직접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권유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다만 실제적인 구원을 받을 뿐이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 선택교리는 복음의 핵심이 된다.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고, 따라서 구원의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에 돌리는 것이다(Warfield, *Ibid*).

그러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성경의 지원을 받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성경은 인간이 全적으로 墮落하여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이 타락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죄의 노예로 전락시켰다. 그리하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 2:3)였으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창 6:5)이었던 존재이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부패상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렘 17:9).

인간은 죄의 선교 아래 있게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인간은 아직도 마음속에 영적인 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롬 3:10, 11).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자유의지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을 뿐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 9).

이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total depravity)한 존재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철저히 부패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생득적 지식을 가지지 못했거나, 선악을 분별

하는 양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덕행을 사모하지 못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평한 감정과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고유한 죄악성 때문에 방종하게 범죄 한다는 것도 아니다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p. 246.).

전적 부패란 말은, 영혼과 신체의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죄로 말미암아 저희는 본래 가졌던 의로움과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떨어졌고, 그리하여 죄로 죽었으며, 모든 기능과 영혼과 육신의 모든 부분이 더러워졌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6장 2절). 다른 말로 하면 고유한 부패가 인간성의 모든 부분에 미쳐서, 그에게 靈的 善, 즉 하나님과 관계된 선이 조금도 없으며, 다만 도덕적 왜곡만이 있음을 뜻한다.

인간에게는 그릇된 판단과 속이는 양심, 그리고 도덕문제에 대하여는 눈이 어두워져 있을 뿐이다. 선을 받아드리고 악을 정죄해야 할 양심은 활기를 잃고 도덕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신체도 부패하여 그 자연적 욕망은 죄로 향하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부패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① 즉 “육에 속한 사람”의 이해력은 부패하였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14).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엡 4:18). ② 성경은, 중생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치는 중에 인간의 전적부패를 암시한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8, 19).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 ③ 성령은 또한 인간의 이해력과 마음이 아울러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의 중생하심과 聖化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고 가르친다. “그가 그 조물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 1:18),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고후 7:1).

이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의 자연상태에서 영적으로 선한 것을 아무 것도 행할 능력을 갖지 못한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은, 그가 어떤 의미의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사람들의 찬동과 감사를 받을 만한 도덕적인 무엇이 있으며, 심지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인정까지도 받을 만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改革派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죄인은 아직도 自然的 善, 世俗的 善 혹은 世俗的 義, 그리고 외형적 종교적 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영혼의 중요한 의무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무능하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권자로 사랑하거나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자연인이 혹시 착한 행동을 한다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구제한다고 할 때,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하거나, 하나님을 사

랑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나름대로 하는 것 뿐이다.

이처럼 중생하지 못한 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율법의 요구에 순응하는 행동을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지 못한다. 그는 죄와 자신의 근본적 기호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지 못한다. 다른 말로하면 그는 靈的 善을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이다(Louis Berkhof, *op. cit.*, p. 247).

전적 무능력은 영적인 것과 관계된 말인데,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고, 중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행동을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Charles Hodge, *op. cit.*, II, pp. 257~27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9장 3절).

전적 무능력을 가르치는 성경은 다음 여러 곳을 들 수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 6:44).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롬 7:18).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 8:7).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14).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 9).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성부)께서 창세 전에 타락한 인류중 얼마를 아무 조건없이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다고 가르친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은 選擇敎理를 연구함으로 더욱 명백해진다. 선택되어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이유와 근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도 자신들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 9:1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선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진술한다. “어떤 사람과 천사는 영생 얻도록 예정되고, 어떤 자들은 멸망 받도록 예정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불변하시는 목적과 오묘한 계획과 아름다운 뜻에 따라, 영생하도록 예정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니, 이 선택은 그들의 신앙이나 고행, 또는 그 신앙의 堅忍이나 기타 그들이 가진 무엇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유로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찬송을 위한 것 뿐이다”,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자에게 영광을 주신 것같이, 그는 영원하시고 자유로우신 뜻에 따라 그 영광을 받게 할 방법까지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게 되는데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효과적으로 부름 받아, 義롭게 되고 양자가 되며, 성화 되고, 또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신앙으로 구원에 들어간다. 피택된 자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부름을 입거나,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양자가 되거나, 성화 되거나, 구원을 얻는 자가 없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3장). 역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선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은

홀로 그 아름다우신 뜻대로 영원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20문). 이 선택교리는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뿐만 아니라, 영국교회의 39개 신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거의 같은 말로 침례교 신앙고백(1689)에도 진술되었다.

구원의 전적 은혜성에 대한 좀더 상세한 이해를 위하여 “선택의 특성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1.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표현이다. 성경은 선택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롬 9:11)이라고 하였다. “공홀히 여길 자를 공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롬 9:15)고 하였다.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엡 1:9)이라고 하였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엡 1:11)고도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선택의 원인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말할 뿐 아니라, 그 주권적 의지는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해석하였다.

칼빈은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서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충분히 또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 대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하게 드러낸다”(Inst., III.21.1). 칼빈은 또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성경이 분명

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도 변하지 않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일 사람과 멸망에 내어줄 사람을 오래 전에 확정하셨다고 말한다. 선택된 사람에 관해서 이 계획은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근거로 한 것이다”(Inst., III.21.7). 이처럼 선택의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쁨에서 온 것이지, 인간의 어떤 先見된 신앙이나 선행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2.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無條件적이다. 선택은 알미니안파가 가르치는 것처럼 인간의 先見된 신앙이나 선행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신자들의 신앙과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지 선택의 조건일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르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48).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롬 9:11).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 1:9).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같은 선택의 영광을 받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엡 2:1~3; 2:12; 롬 13:23; 롬 3:10~12).

위트니스 로마서 9:11을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된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얻는 일은 스스로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누구를 공홀히 여기고자 하시기 때문에 공홀히 여기시고, 또 누구를 강폭하게 하려하시기 때문에 강폭하게 여기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흙을 빚어서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그러므로 예정론을 원만히 표현하는 데는 이 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없다고 본다”(B. B. Warfield, *Biblical Doctrines*, p. 50). 만일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말하는 원죄의 교리가 인정된다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는 전혀 꾀할 수 없는 논리적 귀결이다.

선택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롬 9:11, 13).

바울은 여기서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알미니안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행위나 어떤 조건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 자식들의 선행이나 악행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무조건적이라는 진리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실 때, 인간이 장차 행할 어떤 선이나 공로를 미리 보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말

한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약한 자와 미련한 자와 쓸모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강조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6~29).

주님은 무조건적 선택의 놀라운 진리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실제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며,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눅 4:25~30). 나아만 장군이나 사렙다 과부는 “은혜”를 받을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인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들을 무시하시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어떤 선행조건에 관계없이 은혜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3. 선택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다. 사도 바울은 선택의 풍성한 은혜를 다음과 같이 찬양하였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4).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선택을 “그리스도안에서의 선택”이라고 규정하였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선택의 특성을 묘사하였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엡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 1:9).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중심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어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벧전 1:19, 20). 이 선택의 경륜에는 그러므로 인간의 공로가 배제되고, 다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속이 있을 뿐이다.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의 선택이 그리스도안에서라면, 그것은 응당 우리 자신 밖에서 된 것이요, 우리의 어떤 가치가 고려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셨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공덕과 인간자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으로서의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Com. on Ephesians 1:4).

알미니안파는 “그리스도안에서의 선택”이라는 말을 그리스도가 인간구원의 기초, 혹은 기원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로마 가톨릭

파나 루터파 신학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행동에 자극되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택의 기초, 혹은 기원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선물이다. 성부의 그 사랑은 성자의 파송보다 앞서는 것이다. 성자가 성부를 용서하시도록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랑이 성부 자신으로부터 온 것뿐이다. 그리스도는 선택을 실현하는데 매개적인 원인, 또는 선택의 목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공로적 원인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선택 자체의 공로적 원인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예정과 선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은 성자의 파송보다 앞서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 1: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일 4:9).

4.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되었기 때문에 불변하며 영원한 작정이다. 선택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작정이기 때문에 선택 받은 자의 구원을 확실하게 한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지식이나 능력이나 신실성에 있어서 전혀 결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식의 실수로 인해서나, 실행력의 결핍으로 인해서나, 또는 신의를 저버림으로 인해서나 자신의 선택에 변동을 일으킬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심으로써 선

택의 작정을 성실히 실현하신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믿고 끝까지 구원받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과 성령의 주관적 사역을 통하여 그 결과를 확실히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30).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 11:2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딤후 2:19).

선택은 하나님께서 자기백성을 아신다고 “인”치신 하나님의 견고한 터이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의 수는 불변하며 가감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선택받은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 누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48). 주님은 생명과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요 인간의 일이 아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라”(요 6:29).

주님은 또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고 하시어,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요, 사람이 택한 자가 아니라 하는 것과 택함을 받은 자는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선택받은 자들의 마지막 구원은 그들 자신의 불확실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신 계획의 보증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 선택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다. 하나님의 이 선택

은 어떤 시간 속의 선택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혜를 받아 누리든지, 고귀한 특권과 책임있는 봉사를 위하든지, 혹은 내세영광을 물려받든 지를 무론하고, 모두가 다 영원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4, 5에서 바울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였고, 로마서 8:29, 30에서는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에 이르는 구속의 황금사슬”을 보여줌으로써 선택의 영원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

셋째로, 성경은 구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구원의 은혜를 대항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가 다 함께 죄인의 구원에 참여하시고 공헌하시는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뽑으시는 선택의 사역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속의 사역을 맡으신다. 그러나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은 구원사역의 완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중생사역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죄인에게 적용하시는 중생과 성화의 사역을 통하여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성령의 이 중생사역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의 유익을 선택받은 자에게 적용시키시는 사역이다. 성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이 구원의 단계를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 혹은 유효적 은혜라 부른다. 간단히 말해 성령께서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실 때 그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교리이다. 성령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죄인에게 구원을 필연적으로 적용시키신다. 이

것은 모든 피택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다(David N. Steele and Curtis C. Thomas,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p. 48). 성령은 절대로 어떤 인간의 도움이나 협력에 의하여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성령의 부르심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서 말한대로 유효적 은혜, 혹은 불가항력적 은혜라 부르는 것이다. 성령께서 피택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절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유효적 은혜, 혹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은 생명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모두, 그리고 그들만을 정하시고 시인하신 때에 말씀과 영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날 때부터 빠져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부터 끌어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의 상태로 옮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도록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비취주시며,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새롭게 하시며, 전능하신 권능으로 선을 향한 그들의 소원을 확고하게 만드시며, 그들을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일을 원하게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오도록 하십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0장 1절).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의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강제적으로 구원받게 하신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여 사람의 뜻을 거스려 역사 하신다는 것이다. 금년에

우리나라는 역사상 보기도문 큰 수해를 겪었다. 폭우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의 손실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 폭우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불가항력적 세력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억지로 역사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항력적 은혜에서 말하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을 변화시킬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Edwin H. Palmer,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p. 57.).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죄악에서 선으로 변화시키신다. 사람은 그 본성으로 죄를 사랑하고, 자기를 불행과 영원한 형벌로 인도하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간의 마음이 변화 받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중생시켜 그 본성을 변화케 하시어 과감하게 그의 성품을 바꾸게 하신다. 그리하여 이제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아프게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제 인간은 변화 받은 심령으로 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을 모두 싫어하게 된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다. 그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Edwin H. Palmer, *op. cit.*, p.58.).

칼빈주의자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그의 은혜를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여 있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의 능력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거나 저항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도 사람이 허약하고 무력한 의지에 의해서 방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한곳에서도 사람이 자신의 뜻을 따라 영생을 선택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준 자만이 그리스도에게로 온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돌아오는 그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성경의 증거 : 성경은 죄인이 영적인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중생을 통해서 된다고 가르친다. 성령을 통하여 오는 이러한 내적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이며 결코 인간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중생을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출생이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며, 그가 사용하시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 13).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5).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

며”(벧전 1: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성경은 죄로 죽었던 죄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심령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10).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고후 5:17, 18).

성경은 성령의 중생시키는 사역을 통해서 신앙과 회개를 일으킨다고 가르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4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9).

성경은 구원의 적용이 전적으로 은혜이며,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요 3:27).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 9:1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고전 3:6, 7).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2, 13).

넷째로, 성경은 선택받은 자는 마침내 확실히 구원을 얻게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중생되고 은혜의 상태에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혹시 죄에 빠질 수 있을 지라도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져 영원한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가르친다. 중생의 생명과 이 생명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습성들은 결코 소실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리를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른다.

1. 이 聖徒의 堅忍은 신자들의 성향이나 활동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사람은 다만 성화에서와 같이 이 견인하는 일에서도 협력하는 것뿐이다. 엄밀히 말하면 견인하는 자, 즉 오래 참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성도의 견인을 정의하면,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하여 마침내는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계속적 역사”라 하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전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구원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영에 의하여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화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 없으며, 그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 얻을 것이다”(제 17 장 1절). 그리고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이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

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 그리스도의 공로와 代禱의 효력, 그들 안에서의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거주, 그리고 은혜언약의 성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2절)고 하였다.

2.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의 불가항력성을 증언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 11:29)고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후회하지는 것처럼 철수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바울은 또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6)고도 하였다. 이 말씀은 성도의 생활은 그 처음만이 아니라, 그 생활의 완성에 이르는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이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살후 3:3)고도 하였다. 바울은 또한 성도의 견인의 확실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딤후 4:18). 베드로도 성도의 생활의 온전케 하심, 굳게 하심, 그리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였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벧후 5:10)

주님께서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고 하시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약속을 자기백성에게 주셨다. 그리스도의 백성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유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 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 10:29). 주님께서서는 또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를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고 하시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도 하셨다.

3. 성정은 여러 곳에서 신자가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 3:14).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히 6:11, 12).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3~25). “그러므로 형제들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벧후 1:10).

이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확신의 실제성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일 신자들이 어느 순간에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타락할 수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란 하나의

공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 궁극적 구원의 신념을 포함시켰다. 진실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제 18장 1절)

4. 견인교리는 신자가 잠시라도 범죄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선량한 신자라도 잠시 타락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결코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하는 일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록 지극히 약한 신자라도 그 마음에 견인의 은혜를 주시어 최후의 타락에서 확실히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견인 교리를 진술하면서, 참 신자의 타락은 일시적인 것이요, 영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사단과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에 굴복하며, 자기의 보존의 방법들을 경시하기 때문에, 중대한 죄에 빠지며, 죄 안에 머무를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불쾌를 사며, 성령을 근심케 하며, 받은 은사와 즐거움을 얼마 빼앗기며, 심정이 굳어지며, 양심이 상처를 입으며, 남을 해하거나 넘어지게 해서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다”(제 17장 3절).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전투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는 잠시 넘어지고, 때로는 잠시 신앙을 잃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그가 일단 중생되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다. 만일 그가 중생의 내적 변화를 경험하였다면, 그는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그의 타락은 그 자신을 심히 해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다. 선택받은 자도 탕자(눅 15장)와 같이 잠시 세상에 유혹되고, 욕욕에 빠져 쥐엄열매를 먹으며 살아보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배를 채울 수 없어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謝罪하고 아버지의 환영을 받게 된다. 자식 아닌 자는 결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타락하고 만다면, “성령의 전”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의 몸은 악마의 주소가 될 것이며, 이때 악마는 미쳐 날뛰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배를 탄 자와 같아서 때때로 갑판에서는 넘어지지만, 바다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스펀존의 말은 견인교리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다.

5. 그리스도인이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오직 칼빈주의자들 뿐이다. 로마 카톨릭파, 소씨니안파, 알미니안주의자들, 심지어는 루터파까지도 참된 신자가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도의 견인을 믿지 않는 것이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처음에 어거스틴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그는 엄격한 예정론자였으나, 이 교리를 해설하는데 있어서는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자는 마지막까지 타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은혜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마침내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정하고, 인간의 순종으로 견인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루터교회는 신앙적 활동이 계속될 때 성도의 견인이 유지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참 그리스도인도 은혜로부터 완전히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로부터 타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가 과거에 얻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신앙의 행위는 구원을 위한 인간의 의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거나, 선고받을 어떤 죄를 범하였다면, 그 자신의 의지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며, 그는 마침내는 옛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뜻에 의하여 결코 그들의 구원을 잃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선택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무조건적 선택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은혜로 받은 구원은 스스로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이 뜻은 변치 않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시작된 것이며, 계속될 것이고, 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 1:18).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제시하였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6)(*)